

GMP 귀국 보고서

인적사항

성명	문창숙	학번	201811030
이메일	chanzuki@naver.com		

대학원명	(University of Missouri / Global Leadership Program)	(미국)
기 간	'19. 1 ~ '19. 12	[귀국일: '19년 12월 25일]
첨부서류	GMP 2년차 보고서	

본인은 **GMP 2년차** 과정 수료 후, 귀국 보고서를 제출하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학처장 귀하

2019년 12월 18일

신 청 인: 문 창 숙 (인)

1. GMP 2년차 대학에서의 초기 생활적응(기후, 지리 위치, 생활관련 사항, 자녀학교 등)

위키피디아 정보에 따르면 미주리 콜럼비아 날씨는 한국과 위도가 비슷하지만, 계절별로 뚜렷한 온도차가 있는 무더운 대륙성 기후를 가지고 있습니다. 계절별 일 평균 기온은 1월 영하 1.3°C부터 7월 25.2°C까지 범위를 가지며, 연중 32일 간 32°C 이상, 2일 간 최고 기온 38°C, 최저 기온은 4일간 영하 18°C를 보이고 있습니다. 개인적인 경험을 돌아보면 겨울이 11월부터 4월말까지 지속되며, 봄과 가을은 매우 짧고, 여름은 한국에 비해 상대적으로 덜 무덥습니다. 하지만 콜럼비아는 북극의 찬 기후와 남쪽의 따뜻한 기후가 만나는 중간 지점에 위치하여 기후 변화가 매우 극심하여, 제가 있는 동안 겨울에 초봄 날씨처럼 따뜻한 날이 지속되다가 갑자기 기온이 뚝 떨어져 역사상 4번째로 많은 눈이 내렸고, 11월초에 첫눈이 왔습니다. 봄에는 자주 비가 내렸고, 5월 중에는 콜럼비아 인근에 토네이도가 오기도 했습니다.

콜럼비아는 동쪽으로 세인트 루이스, 서쪽으로는 캔자스 시티와 190km 정도 떨어진 미주리 주 정 중앙에 위치해 있어 양 도시에서 차로 이동시 2시간 정도 소요되며, 남쪽에 위치한 주도 제퍼슨 시티와는 47km 떨어져 있고 차로 30분 정도 소요되는 거리에 위치해 있습니다.

콜럼비아는 분 카운티의 주도이며 미주리 주에서 네번째로 인구가 많은 도시로, 2018년 기준 123,190명이 거주하고 있는 걸로 추정되며, 미주리 강 서쪽에 미국 3대 제퍼슨 대통령에 의해 최초로 1821년에 설립된 미주리 대학교가 위치해 있습니다. 또한, 스티븐스 칼리지, 콜럼비아 칼리지가 있는 대학 도시로 많은 사람들이 대학교와 대학병원에 근무하고, 셸터 인슈어런스 보험회사가 두번째로 많은 근로자를 고용하고 있습니다.

초기 정착은 아시안 어페어 센터의 안내로 대부분의 비지팅 스칼라 분들이 전 스칼라로부터 집, 물품 및 차량을 인계받고, 콜럼비아 도착 후 공항 픽업, 은행계좌 개설부터 유틸리티 등록, 인터넷 개통, 차량 등록 및 아이들 학교 입학까지 정착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기 때문에 어려움이 전혀 없습니다.

유학생들은 대부분 콜럼비아 북쪽에 위치한 밸리뷰 (일명 꽃동네), 페어뷰에 거주하나 일부는 남쪽 락브리지 지역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주거형태는 임대 주택인 듀플렉스로 밸리뷰가 월 평균 750\$로 가장 저렴하며, 페어뷰가 월 평균 1,100\$로 가장 비쌉니다. 지역별로 월마트, 하이비, 거브스, 쉬닉스 등 다양한 마트가 차로 10~15분 이내 거리에 있고, 북쪽 지역에는 콜럼비아 몰, 마샬스 등 대형 쇼핑몰도 위치해 있습니다. 또한, LA 니켈 등 골프장도 시내에 위치하여 접근성이 매우 좋습니다. 그리고 러브앤스시, 수라 등 한식 식당도 있으며 학교 근처에 위치한 리스 마켓에서는 한국 라면, 김치 등 한인 식료품을 구입할 수 있으나, 세인트 루이스 및 캔자스 시티에 위치한 한인 마트에 비해 가격이 조금 더 비쌉니다.

학군은 교육 도시답게 외국인 학생들을 위한 영어 교육프로그램인 EL 프로그램이 공립 초등학교부터 고등학교까지 잘 갖춰져 있습니다. 유학생들은 지역별로 밸리뷰 지역은 팩스턴 킬리 초등학교, 스미스턴 중학교, 페어뷰 지역은 페어뷰 초등학교, 스미스턴 중학교, 고등학교는 락브리지, 히크만으로 자녀들을 보내고 있으며, 대부분은 스쿨버스로 통학을 합니다.

초기에 아시안 어페어 센터에서 한인 교육전문가를 통해서 교육청에서 학생들을 대상으로 실

시하는 영어능력 평가 시험시 통역을 지원하며, 별도로 비지팅 스칼라 분들을 대상으로 아이들 교육에 대한 안내 및 상담도 제공합니다. 그 외에 콜럼비아에 있는 한인교회에서 주말 한글학교, 주중 과외 프로그램, 합창 등 공연기회를 제공하고 있는데 많은 비지팅 스칼라 분들이 아이들을 보내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대니얼 분 지역 도서관에서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최대 주 2회 튜터링 프로그램을 무료로 제공하여 많은 비지팅 스칼라 분들이 자녀들을 보내고 있으며, 개별적으로 1회 30~50\$ 정도를 지불하고 아이들에게 현지 미국인 튜터 수업을 받게 하는 분들도 계십니다.

2. GMP 2년차 대학의 전반적인 교육의 질에 대한 인상

아시아 어페어 센터에서 제공하는 글로벌 리더십 프로그램은 비학위 과정으로 한국, 중국, 태국 등 비지팅 스칼라를 대상으로 하는 수업이기 때문에 KDI에서 1차년도 GMP 과정을 이수하신 분들은 수업을 따라가는데 어려움이 전혀 없습니다.

미국 정부구조, 역사, 커뮤니티, 다양성, 리더십 등을 주제로 한 과목 수업을 통해서 미국에 대한 종합적인 이해의 폭을 넓힘과 동시에 영어실력 향상을 교육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강사는 퇴직한 대학 교수부터 초등학교 교사, 박사과정 재학생 등 다양한 층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수업은 강사가 PPT, 유인물, 교재, 노트 등 교육자료를 사전에 준비하여 비지팅 스칼라에게 제공하고, 강사는 수업내용 전달을 극대화하기 위해서 최대한 평이한 영어로 수업을 진행하여 질문 등 학생들의 적극적인 수업 참여를 유도하고 있습니다.

정규수업 외에 매일 아침마다 각 주제에 대한 전문지식을 가진 아시아 어페어 센터 강사를 초빙하여 다양한 이슈에 대한 뉴스 기사를 읽고 참여자가 질문 및 상호토론하는 모닝토크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신규 비지팅 스칼라를 대상으로 언어교정학과 학부생 및 대학원생이 참여하는 액센트 교정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며 미주리 대학교 학부생들이 참여하는 컨버세이션 파트너스 프로그램도 주 1회 한 학기에 한해 제공하여 미국 현지영어 습득을 원하는 비지팅 스칼라 분들에게 많은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매 2주마다 제퍼슨 주정부, 분 카운티 정부, 콜럼비아 교육청, 아미쉬 마을, 지역경제개발공사(REDI) 등 현장방문 기회를 제공하여 기관 관계자로부터 기관에 대한 설명을 듣고 질의 응답 기회를 제공하여 미국 현지에 대한 이해의 폭을 높이고, 원하는 비지팅 스칼라 분들을 대상으로 제퍼슨 주정부 및 지역경제개발공사에서 인턴십 기회도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한, 비지팅 스칼라 배우자를 대상으로 한 영어교육 프로그램을 주 2회 한 학기에 한해 제공하여 현지 생활에 대한 배우자의 만족도도 높여 주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정리하자면, 전반적으로 모든 수업은 학위과정보다 어렵지 않은 적절한 수준의 수업내용을 제공하여 부담 없이 수업을 들을 수 있도록 구성되어 있으며, 주어지는 과제도 본인이 선택한 주제에 대한 A4 1~2장 정도 분량의 에세이 작성 또는 프리젠테이션으로 부담이 거의 없으며, 무엇보다도 중간 또는 기말고사 시험이 없어서 수업내용에 대한 이해 및 영어능력 향상에 학생들이 집중할 수 있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3. 수강신청 및 이수에 대한 경험, 평가, 후배를 위한 제안 (학기 당 수강과목 수, 각 수업의 구성, 논문작성 강도 등)

글로벌 리더십 프로그램은 1년을 기준으로 했을 때 여름방학 전후로 각각 2개 학기씩 총 4개의 학기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학기마다 총 4개의 과목을 이수해야 하는데, 독립 연구과제 수행을 선택하면 2개의 과목만 수강할 수 있습니다. 수업은 매주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 오전 9:15부터 12:00까지 진행되며, 오후에는 정규과정 외에 액센트 교정 프로그램, 컨버세이션 파트너스 프로그램 등이 참여하는 비지팅 스칼라를 대상으로 진행됩니다.

첫 학기에는 Mindfulness in Everyday Life / Exploring English: Story Books, American Poets, & Comic Books / State Government / Public Policy를 수강했는데, State Government 및 Public Policy는 미국정부에 대한 이해를 높이는데 도움이 됐고, Exploring English는 영어작문 및 다양한 초청 강사의 강연 및 질의응답에 참여할 수 있도록 흥미로웠다. 그리고 Mindfulness in Everyday Life는 명상을 체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했습니다.

두번째 학기에는 Global Soulmates: International Leadership / Travel & Tourism: Western U.S.A, Community Capitals: Building Stronger Community / Explore and Write Columbia를 수강했는데, Global Soulmates는 국가에 따른 다양한 리더십, Travel & Tourism는 미국 주요 관광지, Community Capitals는 지역 공동체 구성과 주요 자산, 그리고 Explore and Write Columbia는 지역의 흥미로운 장소, 공원, 식당, 서점 등 관계자 교류 및 영어작문 기회를 가졌습니다.

세번째 학기에는 The American Frontier를 통해 미국 개척역사를, Diversity in the American Workplace를 통해서는 인종, 성별, 성적 정체성 등에 따른 직장 내 다양성 및 전문가 패널과 상호 교류하는 기회를, American Holidays and Why we Celebrate Them에서는 미국 주요 공휴일을, Current World Events에서는 세계 주요 정치경제 이슈에 대한 기사를 읽고 토론을 했습니다.

네번째 학기에는 Biblical Literature, Welcome to Columbia, Great American Cities, Current World Events II를 수강했는데, Biblical Literature를 통해 성경을 문학적 차원에서 살펴보았으며, Welcome to Columbia 수업에서는 지역병원, 공원, 푸드뱅크 등 지역 주요기관을 방문하여 관계자 면담을 진행하였고, Great American Cities에서는 역사, 발전과정, 주요산업, 주요 관광지, 주요인물 등 주요 도시에 대해 탐구하였으며, Current World Events II에서는 세계 주요 정치경제 이슈에 대한 토론을 진행했습니다.

이 외에도 다양한 과목이 개설되므로 본인의 흥미에 맞게 선택, 수강하면 되나, 개인적으로는 다양한 기관, 장소를 방문하여 다양한 현지인들과 교류하는 수업이 가장 흥미로웠습니다.

4. 기숙사 또는 아파트 및 음식에 대한 평가, 제안 등

앞에서 언급했으므로, 주택에 대한 설명은 생략하겠습니다.

대부분 비지팅 스칼라 분들은 한인 식료품 점에서 식재료를 구입하여 집에서 아침 및 저녁은 해 드시고, 점심은 밖에서 해결합니다. 학교 내에 구내 식당이 곳곳에 있으나 주변 식당에 비해

서 팁을 제외하고는 가격이 특별히 싸지는 않습니다. 학교 앞에도 피자, 쌀국수, 햄버거 등 다양한 식당이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처음에는 미국 음식은 너무 짜고 달다는 느낌이 강했는데, 시간이 가면 입맛이 변해서 이제는 미국음식이 먹을만 하다고 느껴집니다.

식당을 추천해 드리자면, 미국 현지식으로 체다스, 레드 랍스터, 텍사스 로드하우스, 골든 코랄 등이 있으며, 일식은 게이샤, 다양한 한국음식을 드실 수 있는 러브앤스시, 중식은 한국식 짬뽕을 드실 수 있는 뱀부 테라스, 차이나 가든 등이 있습니다.

그리고 대부분 비지팅 스칼라 분들이 여행 중에 차로 여행을 가시는데, 세끼를 미국음식으로 먹기가 부담스러워서 아침은 호텔 조식뷔페, 점심은 현지식, 저녁은 컵라면, 핫반, 참치캔, 김 등을 준비해서 한식으로 드십니다.

5. 기타 활동에 대한 경험담

개인적으로 학교 정규수업 및 부수적인 프로그램으로는 현지인과 교류를 통한 영어 습득에 한계가 있다고 판단되어서 다양한 프로그램을 찾아 다녔습니다. 예를 들면, 학교 내 기독교 단체에서 유학생들을 대상으로 2주에 한번씩 진행하는 영어회화 프로그램, 루터교 등 현지 교회에서 제공하는 영어회화 프로그램, 대니얼 분 지역 도서관에서 아이들을 대상으로 진행하는 각종 학습 및 놀이 프로그램, 성인들을 대상으로 진행하는 각종 강연 프로그램 및 소크라테스 카페 토론 프로그램, 미국인들과 바이블 스터디 등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였습니다. 그리고 아이가 하는 농구, 축구, 수영 등에서 현지 부모들과 대화를 나누려고 노력했으며, 학교에서 진행하는 각종 행사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현지 미국인 부모님과 교류하였습니다.

6. GMP 2년차 경험에 대한 전반적인 평가

비학위 과정인 글로벌 리더십 프로그램을 통해 미국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를 바탕으로, 개인적으로는 미국 현지인들과의 적극적인 교류를 통해서 그들의 정서를 이해하고 현지 영어에 대한 대응력을 높일 수 있었으며, 아이들에게도 현지 학교를 다니면서 영어를 익히고 미국인 친구들과 교류하여 국제적인 교류 역량에 대한 기초를 다지는 좋은 기회였다고 생각합니다.

7. 비자, 출·입국, 기타 해외생활에 대한 정보

전문 여행사에서 항공권을 구입하면 비자 대행을 해주므로, 비자 및 출·입국은 큰 어려움은 없습니다. 다만 미국에서 해외로 여행시에는 DS-201X에 학교 인터내셔널 센터에서 사전에 담당자의 서명을 받아야 됨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8. 후배들에게 하고 싶은 말

비학위 과정은 학업에 대한 부담이 없어서 다양한 경험을 할 수 있는 좋은 기회이지만, 현지 미국인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으로 망설이다 보면 특별히 한 것 없이 1년이라는 시간이 훌쩍 지나갑니다. 적극적인 자세로 현지인과 교류하면 더 깊은 차원에서 미국 문화를 체험할 수 있게 되고 영어실력 향상은 덤으로 주어질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당연한 얘기지만 어려워하지 마시고, 이미 와 계신 비지팅 스칼라 분들께 많은 정보를 구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